

IMF Survey

G-20 재무장관 회의

G-20 재무장관들, IMF 지배구조의 '역사적' 개혁에 합의

IMF Survey 온라인

2010년 10월 23일

-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IMF 대표권 이전을 협상
- 신흥시장국의 대표권을 증가시키기 위해 유럽 이사회 의석 축소
- 개혁안은 IMF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주요 20 개국의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재무장관들은 IMF 국가 대표권을 급성장하고 있는 대규모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할 개혁안에 합의했다. IMF 이사회의 유럽 회원국 의석은 신흥시장국의 대표권을 증가시키기 위해 축소된다.

주요 20 개국(G-20)의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 재무장관들은 IMF 에서의 국가 대표권을 급성장하고 있는 대규모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할 다수의 IMF 개혁안에 합의했다.

한국 경주에서 회합을 가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IMF 회원국의 쿼터(이 기구의 의결권을 결정하는 금융 지분)를 2 배로 증가시켜 의결권 지분을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러한 쿼터 재조정 결과로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급성장하고 있는 대규모 신흥시장국들이 IMF 의 10 대 지분국으로 지위가 상승되었다.

또한 G-20 재무장관들은 24 개국으로 구성된 IMF 이사회를 개편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들에게 이 기구의 상시 의사결정 조직에 대한 대표권을 더 많이 부여할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럽 선진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회 의석이 2 석 감소하고, 모든 상임이사들은 현재와 달리 임명되지 않고 선출될 것이다. 이사회의 규모는 24 개국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정당성에 대한 논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경주 회의에 참석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역사적인” 개혁이고 IMF 가 1944 년에 설립된 이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논평했다. “다른 개혁들도 추가될 것이나, 오늘 재배구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거의 수십 년 간 지속된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경주 재무장관 회의는 11 월 11 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 국가 및 정부 수반 전체 정상회의에서 다음 의제를 준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도달한

합의는 IMF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MF 지배구조 변경 종결 목표일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는 2012년 10월이다.

G-20의 구성

[G-20](#)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터키, 영국, 미국, 유럽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 포럼 및 기구](#)와 협력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IMF의 국제금융통화위원회 및 세계은행의 개발위원회 의장도 직권상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20 회원국들은 글로벌 국민총생산의 약 90퍼센트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대표한다.

G-20의 지도자들은 2009년 9월에 미국에서 열린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 국가 대표권 변경에 대해 정치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G-20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쿼터 공식](#)을 작업 기준으로 사용하여 [쿼터 지분](#)의 최소한 5퍼센트를 과다대표국으로부터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하여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것을 지지했다. 또한 IMF 최빈국의 의결권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IMF의 지분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 사이에 대략 60/40 퍼센트로 분할되어 있다.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쿼터의 5퍼센트를 선진국으로부터 신흥시장국 및 개발도상국으로, 그리고 과다대표국으로부터 과소대표국으로 이전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경주 회의에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6퍼센트를 초과하는 쿼터 이전에 합의했다.

기대 이상의 성과

스트로스-칸 총재는 IMF 지배구조에 대한 결정이 피츠버그 회의의 위임사항에 기대 이상으로 부응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10대 지분국에는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 10개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스트로스-칸 총재는 강조했다. 또한 IMF 이사회는 “모든 이사국을 선출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이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 경주 회의의 공동선언문은 재무장관들이 경제체제에 대한 정책의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IMF의 작업을 환영했다고 발표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대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고 결의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끝난 후에 기자들에게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는 동안 관심 밖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회의에서 공정하고 솔직하게 논의되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모든 당사국들이 대외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과도한 위험을 집중적으로 제한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의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불균형의 지속적인 심화

재무장관들은 그들이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기준하여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하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상호평가과정](#)의 일부로 불균형의 본질과 근본적인 원인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평가과정은 G-20 이 주도하고 IMF 가 지원하는 분석작업이다.

재무장관들은 “이러한 악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IMF 에 상호평가과정의 일부로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상황과 재정, 통화 및·금융 부문,·구조,·환율 및·기타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하도록 요청한다”라고 공동선언문에 언급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계량적 프레임워크는 G-20 이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중국, 유럽, 일본, 미국의 당국들과 논의를 했고, 그들은 모두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전세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협이 경상수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또는 환율과 관련된 대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스트로스-칸 총재는 언급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탄력대출제도(FCL)의 개선 및 예방대출제도(PCL)의 도입을 포함하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의 IMF 대출제도 개혁](#)을 환영했다. 재무장관들은 체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경제의 역량을 더욱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을 IMF 에게 요청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에 대한 IMF 의 역할은 중요한 성취였다고 강조했다. 탄력대출제도와 예방대출제도는 IMF 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기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소방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구는 또한 위기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는 이제 위기를 방지하기 금융 수단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스트로스-칸 총재는 설명했다.



한국 경주의 등대: G-20 재무장관들은 불균형의 지속적인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균형의 본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Newscom)